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 Sermon Notes

Title: “1. Introduction ”

Scripture: Revelation 1:1-7

Date preached: October 26th 2025

Scripture: Revelation 1:1-7

1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things which must shortly take place. And He sent and signified *it* by His angel to His servant John, **2** who bore witness to the word of God, and to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to all things that he saw. **3** Blessed is he who reads and those who hear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keep those things which are written in it; for the time is near.

4 John, to the seven churches which are in Asia:

Grace to you and peace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and from the seven Spirits who are before His throne, **5**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and the ruler over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d us and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6** and has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7 Behold, He is coming with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ey who pierced Him. And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because of Him. Even so, Amen.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해와 땅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Introduction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looking for a new church?

Perhaps you had moved into a new community, or even to a new town or city. Maybe your old church had lost its way and was promoting false doctrine. Perhaps it was torn apart by infighting. Or, maybe there was some other reason that caused you to leave and seek a new church. Whatever the case you were left with the unenviable task of searching for a new place in which to worship.

I have had this experience several times in Korea. It's far from an easy job. This is especially true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Korean churches to pick from, but perhaps only a few dozen churches that offer dedicated English worship.

So how do we go about choosing? What is it that really makes one church “better” than another? Over the years we have had many visitors to our church. Only a few of whom ever committed to joining us on a regular basis. I sometimes wonder what it was that they didn't like. What stopped them from coming back? Was it me, was it you, was it my sermons, the atmosphere, the church

building, the music or the time of the worship. There are so many factors to weigh up or consider. I suspect it was you, and not me that drove them away.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assess a church from the outside. There is only so much that you can ascertain from peering through the windows. Let us imagine that we are walking around town trying to find a suitable church.

The first church we come to is a new church. Big glass windows, a coffee shop on the ground floor, a well appointed cafeteria and a top of the range sound and light system. The Sunday worship is like being at a pop concert. Aren't you impressed? Surely this is the place to come. But in truth what does the exterior and the fancy trimmings really tell us? Sure, you can have a nice coffee before or after the worship service. But behind the glass frontage may lie a lifeless church. A church that is all style and no substance.

So, let's walk a little farther and look at the next church. On the corner we find an old fashioned brick church. In terms of appearance it's nothing special. The paint is flaking from the door. The windows look like they haven't been cleaned in a while. Surely this isn't the place to go. All the external signs indicate a tired and possibly dead church. But again what can we really tell from the outside. If we were to venture inside, we might discover the preaching to be full of passion and zeal. The congregation might be on fire for Christ. The church might be a little run-down because it devotes all its time and money to sharing the gospel and supporting missionaries.

The point I am emphasising is that it's often very hard for us to make an accurate assessment on the state of a church and it's ministry. To really assess things properly we would need to dig deep and do a thorough investigation.

However for the Lord Jesus Christ it is a simple task. He is able to assess the true condition of the church with ease. This is because as its head He is able to see and judge not only the externals but the all-important internals. Nothing lies beyond the scope of His investigation. He is able to deliver a report card that cuts through the superficial and hones in on the essentials be they positive, or negative.

And this is what we will be looking at as we examine Revelation chapters 2 and 3. The Lord Jesus is making an assessment and submitting a report to seven real churches that were operating at the time that John received this revelation.

Why you might wonder is this of any use to you. Who cares you might think about a group of churches in a far off land that you will never visit or plan on attending. That's a valid question. So allow me to answer it.

We should read and pay very careful attention to what Jesus says about them because His assessments can equally apply to us and our churches today. Whilst the letters are not written directly to us, they are written for us to read and learn from. In fact to fail to learn from them would make us arrogant and foolish. This is because the letters to the individual churches highlight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hinder our Christian progress. Although these churches existed a long time ago in a foreign land their problems remain timeless and universal. As we shall see they still apply to churchgoers and churches today. So why wouldn't we want to learn and grow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s. Far better to learn from others mistakes than to have to experience and suffer through them yourself.

So I hope you are excited to join me on this journey back in time to seven churches that existed around 2000 years ago.

But I'm jumping a head a little. Before we look at how Revelation begins I want to give you a little background to the book. As I have told you before having this information helps us better

understand and appreciate what it is we are reading. We will apply the five “W” questions (what, who, where, when and why) to help frame our analysis.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지역이나 도시로 이사했을 때이거나 아니면 기존 교회가 방향을 잃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내분으로 교회가 분열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 일은 힘든 과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한국 교회는 수천 개에 달하지만,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마 수십 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한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로 만드는 진짜 요소는 무엇일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이 무엇을 싫어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무슨 이유로 다시 오지 않았을까? 나 때문일까, 여러분 때문일까, 아니면 내 설교 때문일까, 분위기, 교회 건물, 음악, 그것도 아니면 예배 시간 때문일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저는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 탓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겉모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으려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 방문한 교회는 새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1 층에는 카페숍, 잘 갖춰진 카페테리아, 그리고 최고급 음향 및 조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마치 팝 콘서트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지 않으세요? 분명 사람을 끌어당기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실 외관과 화려한 장식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물론 예배 전이나 후에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번쩍이는 외관 뒤의 교회는 죽은 교회일 지도 모릅니다. 겉멋만 있고 본질은 없는 교회 말입니다.

자, 조금 더 걸어가 다음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모퉁이에 고풍스러운 벽돌 교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창문은 한동안 청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끌리는 곳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든 사인들이 생기없고 어찌면 죽은 교회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설교가 열정과 열의로 가득 차 있고, 회중은 그리스도를 위해 불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데 모든 시간과 돈을 쏟느라 교회는 다소 낡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우리가 교회와 사역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대로 평가하려면 깊이 파고들어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진정한 상태를 쉽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아신 그분은 외적인 면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적인 면까지 모두 보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본질을 꿰뚫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당시 존재했던 일곱 교회를 평가하시고 성적표를 작성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궁금하죠. 결코 방문하거나 참석할 계획이 없는 먼 나라의 교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티당한 질문입니다. 자,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읽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평가가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들은 우리에게 직접 쓰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고 배우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그 서신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우리 기독교의 발전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교회들이 오래전 낫선 땅에 존재했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문제들은 오늘날의 교인들과 교회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살수에서 배우는 것이 직접 경험하고 고통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약 2000 년 전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를 돌아보는 이 여정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앞서 갔는데, 계시록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간략한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경 정보는 우리가 읽을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가지 "W" 질문(무엇(what), 누가(who), 어디서(where), 언제(when), 왜(why))를 적용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What is the book of Revelation?

That's a very good question. No other book of the bible save perhaps Daniel provokes such strong emotions. Depending on your experiences you might answer the question, what is Revelation in a number of ways. Your answer might be positive. It's inspiring and uplifting. It's an encouraging book. Or perhaps your feelings fall on the opposite side of the spectrum. You have somewhat negative feelings. It's confusing and strange. I cannot understand what I'm reading. It's a total mystery to me. What am I supposed to make of all the strange symbols, images and numbers?

Many would agree with Jerome in the fourth century who said, "Revelation has as many mysteries as it does words." We probably wouldn't however go as far as the Reformer Martin Luther who wanted to see it removed from the New Testament entirely. So let's begin with the name.

The ancient Greek word translated as "Revelation" is the word *apokalupsis* (apocalypse). Today we most commonly associate this word with chaos and catastrophe. We use it to describe an event which brings about great destruction and change. However this is not what the word meant in Greek. The word simply means "a revealing," "an unveiling" or a "disclosure."

You might picture it like this. When an art gallery acquires a new painting or exhibit it is placed behind a fancy curtain. After the speeches are made a string is pulled and the curtains parts. The painting or exhibit is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is is what we are getting in Revelation. A curtain is parting revealing to us something hitherto unknown or unseen. In the case of Revelation the Holy Spirit is pulling back the curtain to reveal to us the glorified Christ in heaven and the fulfilment of His sovereign purposes on earth.

When it comes to identifying what kind of literature we are reading we cannot fail to note that Revelation is different to the rest of the New Testament. That's something of an understatement. The biblical scholar Thomas Constable notes that we can identify three kinds of writing in Revelation.

It's mainly apocalyptic, with a dash of prophetic all written into the form of an epistle or letter. As you will know if you've read the Book of Revelation it contains strange visions, gruesome monsters, perplexing numbers, and confusing repetitions. The strangeness of the book is largely due to its literary genre. The Book of Revelation in the main belongs to the category of writings known as apocalypses.

Apocalyptic literature may be best defined as revelatory literature. It is a particular form of writing that claims to reveal cosmic secrets to a human audience. These secrets often involve information about otherworldly regions (heaven, hell, the places of the dead) and or events that will occur in the final days (end times). All of this means that we must approach the book with this understanding in mind. It's not like the other books of the New Testament. It is a book that is highly symbolic in

nature and understanding what these symbols represent is key to understanding it. Fortunately we are not left totally clueless as to what they mean. The book does contain a number of useful clues that can aid us in this endeavour.

Let us turn next to consider the “who.”

계시록은 무슨 책인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니엘서를 제외하고 이 책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한 경험에 따라 "요한계시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영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책이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책이야 아니면 정반대의 감정으로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이상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에게서는 완전히 미스터리야, 이 모든 이상한 상징 이미지, 숫자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4 세기 제롬의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글자만큼이나 많은 신비를 담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로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삭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럼 이름부터 시작해 볼까요?

"계시록 Revelation"으로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는 *아포칼립시스*(*apokalupsis*, 묵시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단어를 흔히 혼돈 그리고 재앙과 연관시킵니다. □ □□□ □□□ □□□ □□□ □□□□□□ 하지만 그리스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드러냄 revealing", "벗겨냄 unveiling" 또는 "알림 disclosure"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미술관에서 새로운 그림이나 전시물을 구입하면 화려한 커튼 뒤에 놓습니다. 연설이 끝나면 끈이 당겨지고 커튼이 걸러집니다. 그림이나 전시물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의미입니다. 커튼이 걷어지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 성령께서 커튼을 걷어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그분의 주관적 목적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른 부분들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문학 작품입니다. 이는 다소 절제된 표현입니다. 성경학자 토머스 콘스터블은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유형의 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은 대부분이 묵시적이며, 예언적인 내용도 서신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이한 환상, 섬뜩한 괴물, 난해한 숫자, 그리고 혼란스러운 반복이 등장합니다. 이 책의 기이함은 주로 문학적 장르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묵시록 *apocalypses* 으로 알려진 글의 범주에 속합니다.

묵시문학 *Apocalyptic literature* 은 계시 *revelatory* 문학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우주적인 비밀을 밝혀준다고 주장하는 특별한 형태의 글입니다. 이러한 비밀에는 종종 다른 세상 천국, 지옥, 죽은 자의 장소)이나 마지막 때(말세)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 책은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상징들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용한 단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누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ho wrote the book of Revelation?

The Book opens by telling us that John wrote it. In fact on four separate occasions the author identifies himself as John (1:1, 4, 9; 22:8). Which John you might be asking. It was after all a fairly common name. The John in question was of course the Apostle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the

son of Zebedee. He was probably the youngest of the 12 disciples and the only one not to have been martyred. Although tradition has it that they did try to kill him. Tertullian, a Christian apologist of the late second and early third centuries claimed in his work “The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the following, John was sentenced to die in boiling oil in Rome. He was, so the story goes miraculously preserved by God.

What evidence do we have that the Apostle John was the author? That's a good question. The first thing we can put forward is the fact that the writer identifies himself just as John. The earliest readers would have associated this work with the apostle. Had it been another John he would have needed to add additional details to differentiate himself from the Apostle. John knew that his first name would be sufficient. This was because he was so well known throughout the churches of Asia Minor.

Secondly, that early tradition unanimously identified the Apostle John as being the author of the fourth Gospel, three epistles and Revelation. Early church figures like Irenaeus, Justin Martyr, and Clement of Alexandria attribute the text to John. Thirdly there are a number of clues within the writing itself. For example only John identified Jesus as the Word or Logos (John 1:1, 14; Rev 19:13). Only John speaks of Jesus as being the true witness (John 5:31-47; 8:14-18; Rev 2:13; 3:14). And it is John who most exploited the Mosaic requirement for the necessity of there being two witnesses (John 8:12-30; Rev 11:1-12).

Of course, I would be remiss in pointing out that some scholars do indeed question whether John was the author. Some argue that it was another writer named John. This is mainly due to the difference in style between the gospel and Revelation. An argument that can be dismissed when we consider that the gospel of John and Revelation are wholly different genres. It is my opinion that we can confidently accept the traditional view. The apostle John wrote the Book of Revelation.

What kind of man was the author?

The book reveals the author to be a Jew and one who was clearly very well versed in scripture. He writes with apostolic authority. He also appears to be a church leader who was well known to those in Asia (Asia Minor), and naturally a deeply religious person. All of these things align with what we know about the Apostle John.

Let us turn next to the “when.”

누가 계시록을 썼는가?

이 책은 요한이 이 책을 썼다는 사실로 시작됩니다. 네 차례에 걸쳐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요한이라고 밝힙니다(1:1, 4, 9; 22:8). 어떤 요한일까요? 요한은 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열두 제자 중 가장 어렸고, 순교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2 세기 말과 3 세기 초 기독교 학자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저서 "이단에 대한 처방"에서 요한이 로마에서 끓는 기름에 던져지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호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의 저자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저자가 자신을 요한이라고 밝힌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 독자들은 이를 사도 요한과 연관시켰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요한이었다면 자신이 사도 요한이 아님을 알리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는 그가 소아시아 교회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초기 전승은 사도 요한을 네 번째 복음서, 세 개의 서신,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라고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이레네우스, 순교자 저스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같은 초기 교회 인물들은 이 책을 요한이 쓴 것으로 여겼습니다. 셋째, 본문 자체에 여러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을 말씀 the Word 또는 로고스 Logos

로 정의했습니다(요 1:1, 14; 계 19:13).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을 참 증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요 5:31-47; 8:14-18; 계 2:13; 3:14). 그리고 두 증인이 필요하다는 모세의 율법 조항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요 8:12-30; 계 11:1-12).

물론, 일부 학자들은 요한이 실제 저자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의 다른 저자가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주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문체 차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른 장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책은 저자가 유대인이며 성경에 매우 정통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기록했으며, 아시아(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 지도자이자, 매우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이제 "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book of Revelation written?

Revelation was written at a time when Christians were entering a period of severe persecution. Two main time periods have been suggested. The first suggestion is that John wrote during the latter part of Emperor Nero's reign (54-68 AD). The second suggestion says that Revelation was penned during the reign of emperor Titus Flavius Domitian (81-96 AD). Most conservative scholars go for the second. They believe that John wrote sometime between the years 92 to 96 AD. This was also the view of many of the early church fathers such as Clement of Alexandria, Eusebius, Irenaeus, and Victorinus. The latter date is I believe the correct one for the following reasons.

An earlier date doesn't allow enough time for the Asian churches to falter. The decline we read about in many of the Asian churches therefore supports a latter date. Paul had ministered in many of them into the mid 60s AD. It seems unlikely that they would have suffered such rapid decline in just a few years. We might also cite as evidence for the latter date the rise of the heretical sect known as the Nicolaitans (Rev 2:6). It would be very odd that if this dangerous group were in existence during Paul's time that he wouldn't have mentioned them in his writings. Surely if he'd known about them, he'd have warned the churches. It's likely then that this group rose to prominence after the mid 60s. This leads us to conclude that John is writing Revelation during the time of the Domitian's persecution. Let me say a few things about Titus Flavius Domitian. What kind of a man was he?

He was so history tells us a cruel and vicious man. He has the well deserved reputation for being a tyrant due in large part to his treatment of the Roman senate. There's nothing exceptional in this I hear your say. Weren't all Roman emperors cruel and vicious! Yes, to some degree this is true. But Domitian was particularly unpleasant. He was a paranoid bully with a reputation for sadism. It was said of him that even as a young child he enjoyed torturing flies with his pen. He killed his own brother and then initiated persecution against believers.

Christians living at this time in history faced two major obstacles. The first was a social one. It seems that many people in society were fabricating lies against them. If there were famines, plague, earthquakes or any form of calamity the pagans were quick to blame the followers of Christ. It's their fault this had happened. If they worshipped our gods everything would be fine. This led, quite understandably to anger and bitterness, and a willingness to see Christians killed. After all if they were responsible for such bad things happening it is your civic duty to get rid of them.

The second problem was a political one. It centred on what a believer was to do about emperor worship. The Roman Empire was made up a vast number of different ethnic and people groups. The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정당한 주님 자리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잠재적인 반역자로 낙인찍혔고, 심지어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면 투옥, 박해,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1 세기 말 소아시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이제 "어다"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Where was the Book of Revelation written?

John received and wrote the Book of Revelation whilst he was exiled on the small rocky island of Patmos. Tradition has it that it was the Emperor Domitian who sent him there. Patmos as you can see from the map is located about 50 miles from the Turkish coastline in the middle of the Aegean Sea.

Today it is a beautiful place to visit. There are some wonderful beaches, crystal blue seas and many historic ruins to explore. But in John's time it was a barren and unpleasant Roman penal colony. It was a place to which criminals and political prisoners were sent. Convicts were allowed relative freedom to roam the small island, but most had to provide their own food and shelter. A small Roman garrison of soldiers kept them in check and made sure they didn't escape. This was highly unlikely however. The island was too far away from the mainland to swim. It was also home to very few trees and so building a boat or raft on which to escape was impossible. Many prisoners died of exposure, violent attacks by other convicts, or starvation. So it really wasn't a pleasant place to be. We do not know exactly how long John spent on the island. It may have been a few months or even a few years.

Let us turn now to our final "W," why.

계시록이 쓰인 장소는 어디인가?

요한은 작은 바위섬인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계시를 받고 기록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밧모섬은 에게 해 한가운데에 있고, 터키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수정처럼 푸른 바다, 그리고 둘러볼 수많은 역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시대에는 황량하고 척박한 로마의 유형지였습니다. 이곳으로 범죄자와 정치범들이 보내졌습니다. 죄수들은 이 작은 섬을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식량과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소규모 로마 수비대가 그들을 감시하고 탈출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탈출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섬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수영해 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무가 거의 없어서 탈출할 배나 뗏목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의 폭행, 또는 굶주림에 노출된 채 죽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섬에서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달 어찌면 몇 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W", 즉 "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y was the Book of Revelation written?

The Book of Revelation, of perhaps more accurately the epistle was originally sent to seven churches, or groups of churches in the region of Asia Minor (modern day western Turkey). They were the original recipients. However John assures us in verse 3 of chapter 1 that any reader or hearer will be blessed by the book. So as I said before it might not have been written to us but it was written for us. Having said this however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it was originally sent to real people who were facing a tough time. God's people in ancient Asia Minor were experiencing severe persecution. So this letter was not sent to satisfy their curiosity to know about the future. Given their struggles in the present this is understandable. Who really cares about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if I'm highly likely to perish in the future. So the real purpose or motive behind this letter is encouragement. Jesus is giving this revelation to John to encourage, or give hope to His

beleaguered followers. The message could be summarised as, “Be strong, repent where it is needed and continue to run the good race.”

Thomas constable beautifully sums up the message of Revelation in just two words.

“Christ wins.”

In a time of hardship and persecution what better message could you receive than this. Times may be tough, you will endure pains and difficulty but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you will prevail. It is therefore a message for the ages.

So with our background now complete let's look at how this letter begins. We will consider the first seven verses.

계시록은 왜 쓰였나?

계시록, 더 정확히 말하면 서신은 원래 소아시아(현재 터키 서부) 지역의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원래 수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 장 3 절에서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이 원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실제 사람들에게 보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소아시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는 이해할 만합니다. 만약 내가 미래에 멸망할 거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따라서 이 서신의 진정한 목적이나 동기는 격려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격려, 즉 소망을 주기 위해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강건하라. 회개가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선한 경주를 계속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콘스타블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단 두 단어로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Christ wins."

힘든 시기와 박해의 때에 이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힘든 시기를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했기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이 서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처음 일곱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things which must shortly take place. And He sent and signified it by His angel to His servant John,

Revelation begins by very helpfully telling us exactly what it is we are reading. This is a “revelation” or an “unveiling” of the Lord Jesus Christ. He is the subject of what is to follow. Let me re-emphasise that point. As you read Revelation never stray too far from the reality that this is all about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He is also the one giving this information to the Apostle John. So we can think of Revelation as being both a disclosure about Jesus, and a disclosure from Jesus.

John refers to himself here as a **bondservant** or a “slave” of Jesus Christ. This was the traditional title adopted by all the apostles. It is the humble stance they all took. Although God had specially chosen them they did not regard themselves as being exalted or special. How was the message or prophecy delivered to John?

Well, as we read here God the Father gave the revelation to Jesus who then shared it with John through an intermediary angel. Having said this we must also recognise that John received the revelation in a variety of ways. Sometimes it came directly from Jesus (Rev 1:10). On other occasions it came via a voice from heaven (Rev 10:4). At other times it was delivered though an

elder (Rev 7:13). and on many other occasions it came through an angel (Rev 17:1). No matter how it came the communication was alway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The message was to be shared among God's servants. He wanted them to know what would soon be taking place. Now when we read the word “soon” here we might be a little puzzled. The things contained in Revelation were revealed approximately 2000 years ago. We are still waiting for some of them to be fulfilled. So in what way can we think that these things were shortly to take place? Most likely what is meant here is that these things could happen at any moment without delay. The judgements about which the book speaks could begin at any time.

That's a useful reminder to us today. Though we often live as if Christ's return is a far off future event none of really can be sure. Far better to think of it as John does as being imminent. It could take place at any time.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이 책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주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분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모든 내용이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또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bondservant**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든 사도들이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칭호였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추한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거나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또는 예언은 어떻게 요한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은 중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그 계시를 전하셨습니다. 그 외에 요한이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기도 했고(계 1:10), 하늘의 음성을 통해 오기도 했고(계 10:4), 장로를 통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계 7:13). 그리고 많은 경우 천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계 17:1).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든, 그 메시지는 항상 성령의 영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히 일어날 일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속히 soon**” 라는 단어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긴 내용들은 약 2000 년 전에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중 일부가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이러한 일들이 자체 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한처럼 암박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 who bore witness to the word of God, and to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to all things that he saw.

In verse 2 John testifies (bears witness) that this account of his encounter with Jesus Christ has been recorded accurately. He has not added to, or embellished the narrative in any way. He tells us in this verse that he was a personal eyewitness to these things. Forty-four times in the book John records the expression “I saw.”

He builds upon this by describing the substance of his testimony as being the very **Word of God**. He recognised therefore that he was engaged in writing Holy Scripture.

The book of Revelation can, just as with the rest of God's revelation rightly profess to be the product of divine inspiration and not the product of human imagination. This call for us to pay very careful attention to what it tell us. We are not reading a fictitious account. What is recorded here is important. It's what God wants us to know. This thought is further highlighted in the next verse.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니라

2 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히 기록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더하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구절에서 자신이 이 일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44 번이나 "내가 보았다 I saw" 라는 표현을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이 증언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다른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내용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 구절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3 Blessed is he who reads and those who hear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keep those things which are written in it; for the time is near.

In this verse John promises a blessing to the person who reads aloud the words which have been written, and a blessing to those who hear and respond in obedience to what they hear. It's worth emphasising the three keywords mentioned here. We are to **read, hear** and then **obey** what Revelation (and more generally the entirety of what God's Word says). I will come back to this subject at the end of today's sermon.

This is actually the first of seven blessings or beatitudes recorded in the book (1:3; 14:13; 16:15; 19:9; 20:6; 22:7, 14). It's also a warning against some today who choose to ignore the Book of Revelation. It's a confusing and difficult book to understand they claim. Let's read and study something else. To do so means that such a person, or even church is shutting themselves off from God's blessing.

Fortunately, John didn't say that we had to understand everything in the Book of Revelation to be blessed. As I'm sure you would agree that's a big relief. Let's all confess that there are some difficult things contained within its pages. Things that have been argued over and debated for centuries.

But despite this caveat we can all be blessed by reading and hearing from Revelation even when we don't understand it completely. This is because it's subject matter is the overall victory of Jesus Christ. How can we not be blessed by learning more on this subject.

That John wrote these words regarding a blessing is further evidence supporting his belief that he was writing something that was divinely inspired. In the Jewish world such a blessing would never be pronounced on a merely human book.

We can also infer from this verse that this letter was intended to be read aloud in public. As I mentioned during our recent study of 1st Timothy it was common in the early church for lengthy portions of scripture to be read aloud in church. As an aside it's a great shame that this practice has largely fallen by the wayside today.

After the reading the pastor would expound on what had just been read. His explanation, much like a good expository sermon today was designed to illuminate the passage and provide guidance for how it is to be properly applied.

We must never neglect this aspect of our Christian faith because as John reminds us the **"time is**

near.” God’s Word is not something to read or hear and then ignore. As we spoke about before the idea of time “being short” or “at hand” puzzles many today. We might even be tempted to ask whether John misheard or got his dates confused. It has been 2000 years since John wrote down this revelation and we are still waiting. So the time wasn’t very near in terms of his original readers.

To understand what John meant by the term “time is near” we need to do a little unpacking. The word for “time” used here is the word *kairos*. This word does not refer to chronological time, but rather to the right or fitting time for something to take place. It is used to refer to season, epochs or eras. For example, we might say today,

My hairs getting long it’s time to get a haircut.

We are not referring to when in history this will take place, but rather that soon it will be a fitting or suitable time (season) to visit the hairdressers.

So, John is saying that the fitting or appropriate time for these things to begin could be at any moment.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the next major event on God’s timetable is the return of Christ for the church (the rapture). The time may indeed be near.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구절에서 요한은 기록된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 핵심 키워드를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가지 축복 중 첫 번째 축복입니다(1:3; 14:13; 16:15; 19:9; 20:6; 22:7, 14). 또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고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한은 복을 받으려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그 말은 큰 위안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 세기 동안 논쟁의 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 모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한 승리가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운다면 어떻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복에 관한 말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는 그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쓴 책에 그런 복을 선포하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 이 서신은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읽히도록 의도된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디모데전서 공부에서 언급했듯이, 초기 교회에서는 긴 성경 구절을 교회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덧붙여, 오늘날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문을 낭독한 후 목사가 방금 읽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의 좋은 강해 설교처럼, 그의 설명은 본문의 뜻을 밝히고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때가 가까움** time is near"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이러한 측면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이 "짧다"거나 "가까웠다"는 개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요한이 잘못 들었거나 날짜를 잘못 안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한 지 2000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원래

독자들에게는 때가 그리 가깝지 않았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때가 가까우니**"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면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때 time"는 '*카이로스* *kairo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적절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계절 시기 또는 시대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길어서 이별할 때가 됐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미용실을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기(계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적절한 시기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될 중요한 사건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휴거)입니다. 그 때가 정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4 John, to the seven churches which are in Asia:

Grace to you and peace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and from the seven Spirits who are before His throne, 5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and the ruler over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d us and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6 and has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As we have noted before first century letter writers began by putting their name first. So in putting his name at the top John is merely following the conventions of his day. We are then told about the recipients. The letter is directed to the seven churches in Asia. As an interesting piece of biblical trivia the Apostle Paul also wrote letters to churches in seven places (Rome, Corinth, Galatia, Ephesus, Philippi, Colosse, and Thessalonica).

When we say "Asia" we are referring to the geographic region once known as Asia Minor. Today this area is located in Western Turkey. The seven churches are located in a roughly crescent shaped pattern. The churches in view are Ephesus, Smyrna, Pergamum, Thyatira, Sardis, Philadelphia, and Laodicea. Why you might wonder are they recorded in this particular order.

Well, if we imagine John arriving on a boat from Patmos. He would logically arrive first at the city of Ephesus. If he was then to travel in a clockwise direction along the well established trade roads in use at that time he could circle around and visit all seven cities. This would be a journey of around 450 km (280 miles). I will have much more to say about each city as we look at each in turn.

John then extends to his readers the greeting of **grace and peace**. This was a common (standard) message attached to believers letters at that time. This grace and peace however is not only coming from the writer of the letter. This greeting is coming from the triune God Himself.

God the Father is described as being eternal, existing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reference to the "seven spirits" has generated considerable debate. Many believe this to be a unique reference to the Holy Spirit. Now, we know that there is only one Holy Spirit so why are seven Spirits mentioned here? Many believe that this number represents perfection. So seven here is used to symbolise the Holy Spirit in His full perfection.

The Lord Jesus Christ is described as **the faithful witness**. A faithful witness describes someone who speaks and represents perfect truth at all times. The Lord Jesus whilst on earth perfectly witnessed to the true nature of God. He was also **firstborn from the dead**. This reminds us that Jesus conquered death and arose from the grave. He was not the first to be raised from the dead. That honour goes to the son of a widow in Zarephath (1 Kings 17). But Jesus resurrection was VERY different. He was the first to rise from the dead in a glorified, everlasting body. Because of this he can rightly be referred to as "the firstborn of the dead." His resurrection guarantees the resurrection of believers of the church age. Someday He will return to earth and reign over the nations. At that time every king will submit to His rule. They will bow the knee.

The Lord Jesus will truly be **the ruler over the kings of the earth**

John is then moved to burst out into a moment of praise as he remembers Christ's work for believers. Lest we forget Christ's work wasn't merely a work of the past. It is an ongoing work in the present. Jesus loved, loves and will always love the elect. Christ loves believers with an unbreakable love (Rom. 8:35–39). The greatest expression of His love for us came when He releas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This is a reference to the atonement provided by His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on our behalf.

What a wonderful truth this is. No true believer should ever tire of hearing this glorious news. I never get sick of proclaiming this truth from my pulpit. The truth brothers and sisters is that we were once helpless sinners. Lost and without hope. Dead in our sins. But no longer. Now, as John explains in this verse, we are a royal priesthood (1 Peter 2:9). Once we served sin but now we worship and serve God. We are a kingdom of priests. In Old Testament times, priests offered sacrifices on behalf of the people of Israel. They stood as mediators between the people and God. Now we come directly into God's presence through Jesus, and we offer ourselves as spiritual sacrifices to God (Romans 12:1; 1 Peter 2:5). Once we were in Satan's domain but now we are in Jesus' domain.

As John contemplates all that God has done for believers he spontaneously offers up unrestrained praise to God.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He concludes his doxology by saying, "Amen," meaning, "Let it be so!" A similar proclamation of praise for God's grace and power on our behalf should always be on our lips.

Let us conclude today's sermon with the following verse.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밀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 세기 서신 작성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맨 앞에 두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요한도 당시의 관습대로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나오는데, 이 서신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흥미로운 성경 상식 중 하나는 사도 바울도 일곱 곳(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썼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Asia"는 한때 소아시아로 알려졌던 지역을 지칭합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터키 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대략 초승달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왜 이 교회들이 이런 순서로 기록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요한이 밧모섬에서 배를 타고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논리적으로 에베소에 먼저 도착했을 것입니다. 당시 널리 사용되던 무역로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여행한다면, 그는 일곱 도시를 모두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약 450km(280 마일)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각 도시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도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는 당시 수신자들의 서신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표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은 서신의 저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일곱 영"에 대한 해석은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을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오직 한 분이데, 왜 여기서 일곱 영이 언급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숫자 7 이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곱은 온전하신 성령을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됩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언제나 완전한 진리를 말하고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완벽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은 사르밧에 사는 한 고부의 아들에게 돌아갑니다(열왕기상 17 장).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이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불립니다. 그분의 부활은 교회 시대의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언젠가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열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왕이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참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행하신 사역을 기억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롬 8: 35-39).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셨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속죄를 가리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참된 신자라면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는 데 결코 자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강단에서 이 진리를 전할 때 지켜온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은 우리가 한때 참담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소망도 없이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요한이 구절에서 설명하듯이,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베드로전서 2:9). 한때 우리는 죄를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아스라엘 백성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접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드립니다(로마서 12:1; 베드로전서 2:5). 한때 우리는 사탄의 영역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거침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의 "아멘"으로 찬양을 마무리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선포가 항상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구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7 Behold, He is coming with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ey who pierced Him. And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because of Him. Even so, Amen.

In our final verse for today John looks forward to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It is important not to confuse the second coming with the rapture. They are two separate and distinct events. The rapture occurs when Jesus comes in the sky and catches up (snatches up) Christians from the earth to be with Him.

The rapture then is a "secret event," in the sense that only those who are saved, the elect will see Jesus. The second coming of Christ is altogether different. The second coming is a public event. John declares that every eye will see Jesus at the time of His second coming.

It is highly likely that as John wrote this remembered back to what the angel told him and the other apostles when Jesus ascended into heaven. An event that by this point was several decades in the past. The angel at that time promised the disciples that Jesus would come again in the same way as He went into heaven. They saw Jesus ascend in a cloud from the Mount of Olives (Acts 1:11-12).

At His glorious second coming He will return in the clouds to the Mount of Olives (Zechariah 14:4; Matthew 24:29-30).

We also know that by this time the tribes of Israel will have undergone a national revival. They will have turned from their rejection of Jesus and now embraced Him as their saviour. When He returns in glory they alo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will look at His scars and mourn what they made Him endure.

So now as believers we wait. When will Jesus come to call us up in the rapture? We don't know. But whilst we wait let us keep one eye on the clouds as we continue to work hard for the Kingdom.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the first church mentioned. A place we know quite well, the church in Ephesus.

7 불자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의 마지막 구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재림과 휴거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올려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즉 택함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에서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림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요한은 재림 때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천사가 자신과 다른 사도들에게 한 말을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건은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천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사도행전 1:11-12). 영광스러운 재림 때, 그분은 구름 가운데 감람산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스가랴 14:4; 마태복음 24:29-30).

또한 이때쯤 이스라엘 지파들이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에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 그들은 온 세상과 함께 그분의 상처를 보며 그분이 겪으셨던 고통을 애통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로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휴거로 데리러 오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하며 구름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뜻대로라면 다음 주에 첫 번째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곳, 에베소 교회입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reading.

1 Read, hear and keep

As we read in today's account we are promised a blessing if we read, hear and keep the words of John's prophecy. Let's extend that thought out a little. We can expect a good outcome if we follow that maxim for all of God's Word. God blesses those who love and obey what He commands. But of course to do this means actually knowing what God says (wants).

I'm often shocked by just how little bible reading many professing Christians admit to doing. Some dip into their bibles occasionally, but many more confess to seldom or never reading God's Word. I

really wonder how such people hope to mature and grow in their faith. God gave us this love letter. He expects us to treat it in the same way we would a cherished letter from someone we truly cared about.

Let there be no excuses. No ifs, buts, or maybes. If you profess to know and love the Lord then you need to read, hear and then keep or obey what the bible tells us. I don't think I can make it any simpler than that. Reading and hearing is pointless if we then ignore what it says. So if our passion for God's Word has diminished let's do all we can to renew it. Or if it was never very strong to begin with let's ask the Holy Spirit to make it come alive. May we all, with a renewed vigour desire to read, hear and then obey what God's Word reveals.

배울 교훈

오늘의 독서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읽고 듣고 지키라

오늘의 본문에서 요한의 예언의 말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적용되는 이 격언을 따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읽지 않는지 알고 종종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성경을 읽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읽지 않거나 전혀 읽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서 받은 소중한 편지를 대하듯 그분의 편지를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하지만, 어쩌면 같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읽고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약해졌다면, 그 열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부터 열정이 강하지 않았다면, 성령께 그 열정을 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2 Looking forward to Jesus Christ

John along with many others in the early church desperately hoped for the soon return of Jesus. This as I explained was understandable. In a time of harsh persecution the promise of the peace and security that Christ promised is desirable.

But what about us? Are we looking forward to Christ's return with eager anticipation. Or are we really rather comfortable where we are? Do we pray that our Lord and saviour returns soon, or are we not all that bothered? I suspect for some today it's the latter. It's not that they don't want Jesus to come, but rather that they are so happy and comfortable that it's not their priority. It is often the case that peace and prosperity stunts Christian growth. When life is easy we don't focus on Christ's return as we should. We don't look forward to it in the appropriate way.

So let's do a little self reflecting. How often do you think about Jesus second coming? I hope it's something you dwell on often. But if our saviours return is never in your thoughts perhaps you need to refocus. We all should be eagerly waiting and praying for His soon return. Allow me to give you scriptural support for this.

This is how the book of Revelation closes.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Rev 22:20)

Is this our prayer?

2.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요한은 초기 교회의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는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혹독한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안전은 참으로 간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안주합니까?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의 재림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평화와 번영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편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지 않습니다.

자, 잠시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자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구원자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요한계시록 22:20)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